



웹소설 트렌드에 투영된 현대인의 내적 욕구 고찰

「영어데이터분석기초」, 「문화콘텐츠학입문」 강의페어링

이진희, 오하영, 연구 교수님 지도 | 문화콘텐츠학과 2학년 조수연

[연구 배경]

웹소설은 기존 종이책으로 대표되는 소설 문화를 재매개하는 동시에 새로운 디지털 매체의 특성을 포함하며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영어데이터분석기초’ 수업에서 배운 R을 활용한 웹 크롤링, 데이터 시각화 방법을 활용해, R 코드를 작성하고 플랫폼 속 웹소설 작품들의 키워드를 추출 및 정제하여 워드클라우드를 시각화하였다. 또한 ‘문화콘텐츠학입문’ 수업에서 배운 콘텐츠 분석 방법을 적용해 데이터 분석 결과 속 사회적 함의를 탐색하려고 시도하였다.

[데이터 분석 결과]



스테디셀러 200위



전체 작품 (4000개)



스테디셀러 200위



전체 작품 (522개)



<조아라> 로맨스 전체(2960개)

키워드 검색 기능을 활용하는 웹소설 플랫폼 세 곳(리디북스, 북큐브, 조아라)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인기/전체 작품의 키워드를 빈도수대로 정렬해 비교하였다. 기본적으로 웹소설 플랫폼의 카테고리는 ‘로맨스’, ‘판타지/무협’, ‘BL’로 분류되는데, 데이터 분석 결과 ‘판타지/무협’ 장르에는 전반적으로 키워드 사용이 미진하여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키워드 활용이 다양하고 유저의 이용이 가장 활발한 ‘리디북스’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되, 타 플랫폼의 결과 지표도 활용해 함께 비교하였다. 단, 전체 작품 데이터의 경우 웹 크롤링의 한계로 성인 작품은 포함하지 못 하였다.

[데이터 결과 해석]

| 배경은 주로 ‘현대물’ |

‘현대물’ 키워드는 인기/전체 차트를 가리지 않고 1~2위를 차지했다. 기존 연구들이 판타지 요소, 역사물에 초점을 맞춘 것과 비교하면 뜻밖의 결과다.

웹소설에서 ‘가독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꼽히며, 심오한 주제는 기피되는 경향을 보인다(김경애, 2017). 따라서 현대물 작품이 가장 많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이유는 작가나 독자 모두 이해하고 접근하기 쉬운 현대 배경을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독특한 점은 ‘현대’를 다루면서도 현실의 심각한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현실에 지친 현대인들이 보다 단순하고 쉬운 세상을 바라는 모습을 보여준다.

| 성인 작품의 강세 |

스테디셀러의 성인 작품은 90% 이상으로 ‘절륜’, ‘소유욕/독점욕/질투’, ‘고수위’, ‘집착’ 키워드가 두드러진다. 기존 연구에서는 로맨스 소설이 종이에서 웹으로 이동하며 성인 작품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으나, 그럼에도 등장인물의 감정과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은 변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Ogi Ogas 외, 2011). 이는 본 연구와 유사한 결론이다.

다만 ‘소유욕’, ‘집착’과 같은 키워드가 두드러진 점은 현대인의 외로움과 관련이 있다.

사회가 개인주의화되면서 현대인들은 보다 많은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낀다. 일부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관계중독’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 증상은 남성보다 관계지향적인 경향이 많은 여성에게서 심하게 나타나며, 30대 여성 환자가 그 중 가장 많다고 한다. 해당 키워드는 ‘집착’이라는 이름의 사랑으로라도 자신의 외로움을 채워줄 이성을 갈망하는 현대 여성의 씁쓸한 초상을 드러낸다.

| 이상적인 남주인공 |

남주인공과 관련해서는 ‘능력’, ‘다정’, ‘순정’의 키워드가 두드러졌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역대 로맨스 소설 속 남주인공의 외면은 지배 서열의 최고점에 있는 알파남이고, 숨겨진 내면은 부드럽고 달콤한 특성을 지녀왔다(Ogi Ogas 외, 2011). 이는 본 연구와 유사한 결론이다.

다만 ‘까칠남’은 전체 차트보다 인기 차트에서 순위가 급격히 하락했다. 2000년대 초 인터넷 소설 속 남주인공 캐릭터가 남성 소비니즘의 특성을 지닌 마초였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에 와서 큰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김명석, 2008). 마찬가지로 여주인공의 캐릭터도 가녀리고 수동적인 모습에서 자신감 있고 능력 있는 캐릭터로 인기가 옮겨갔다. 이러한 변화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호소통과 사랑 속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현대 세대의 변화된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위로가 필요한 여주인공 |

여주인공과 관련해서는 ‘상처’ 키워드가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다. 독자들은 주로 여주인공의 심리에 감정을 이입하므로 ‘상처녀’는 현대 여성이 가장 크게 공감하고 동일시한 대상으로 볼 수 있다. 기존 연구는 최근 로맨스 서사의 가장 큰 변화로 ‘계급 상승에 대한 여주인공의 체념적 태도’를 꼽았다(황미요조, 2013). IMF 이후 심화된 경제불평등이 로맨스 서사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변화는 현대 여성의 삶의 모습에 큰 영향을 미쳤다. IMF 이후 남성 1인 생계부양자 모델이 와해되자, 많은 여성이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감수하며 노동 시장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전통적으로 여성의 일로 여겨지던 가사노동은 새로이 재분배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여성은 이중노동을 짊어지는 동시에, 기업은 이를 근거로 여성의 적은 임금과 비정규직 환경을 합리화했다(김태현 외, 2011). 따라서 최근의 현대 여성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립이 불가능함에 좌절하는 동시에, 이중노동이 당연시되는 결혼 역시 선택할 수 없는 현실에 놓이게 된다.

즉, ‘상처녀’ 키워드의 인기와, 그리고 현재 한국 사회의 초혼 연령의 상승과 함께 전문성을 지닌 미혼 여성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는, 위로가 필요한 현대 여성 노동자의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결론

웹소설 시장은 누구나 소설을 창작할 수 있는 사이버 세계의 ‘자기만의 방’을 제공한다. 따라서 영화, 광고, 게임과 마찬가지로 웹소설도 우리 시대의 한 단면을 드러내는 콘텐츠로서 기능한다. 본 연구는 웹소설 키워드라는 빅데이터를 통해 현대인의 ‘현실 도피’, ‘외로움’, ‘변화된 젠더 관념’, ‘경제구조적 좌절’에 대해 알아보았다. 정량적 분석이 미흡했던 웹소설 연구에 키워드라는 파라텍스트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1 BL(Boy's Love): 남성 간 동성애 관계를 다루는 웹소설 장르를 일컫는다.

2 ‘절륜’은 ‘아주 두드러지게 뛰어나다’라는 뜻의 ‘절륜(絶倫)-하다’에서 유래한 것으로, 주로 성적 능력까지 비범하는 뜻으로 통용된다.

* 참고: 포스터 지면 관계 상 참고문헌은 생략합니다. 본 연구의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 상단 왼쪽 QR 코드로 확인 부탁드립니다.